

[번역]

룩셈부르크와 GCF, 기후재정 조성 논의

2016.11.18 마라케시 -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캐롤 디에쉬부르크 룩셈부르크 환경장관과 하비에 만자나레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대행이 만나 지난 1년 GCF이 이룬 진전과 국제 기후재정흐름 촉진을 위한 GCF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룩셈부르크의 GCF 공여금은 5천만 달러에 육박하며, 국민 일인당 공여금은 약 100 달러로 일인당 공여금은 가장 크다.

장관은 “GCF가 지난 12달 동안 27개 사업 후보군을 마련하고 1억 달러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우리나라는 기후재정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국제 기후재정에 1억2천7백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는 국민 일인당 230달러는 내는 셈이다. 다른 정부도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GCF에 상당한 기금을 출연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GCF 사무총장은 “GCF의 강력한 지지자인 룩셈부르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이다. GCF는 지난 1년간 사업 포트폴리오 및 사업 후보군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뤘으며, 변혁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 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luxembourg-and-gcf-meet-to-discuss-climate-finance-mobilization?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